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 주관기관 신규 선정

- 2년간(2025~2026) 병원 내 창업기업 공간 지원 및 임상 자문 등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3월 19일(수) 병원-산업계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실험실 운영」 사업의 주관기관 6개 병원*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유형① 협업기반 조성형)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

** (유형② 협업성과 창출형)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은 병원의 우수 자원을 개방하고, 임상역사의 아이디어와 창업기업의 기술·제품을 연결하여 기업의 성장과 의료현장의 미충족 의료 수요(unmet needs)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사업이다.

지난 6년간 사업을 통해 1,427명의 임상역사가 사업에 참여하여 임상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606개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이 병원 내 연구시설 및 임상의 컨설팅 등 지원을 받았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병원과의 접점을 찾지 못해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창업기업이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임상 자문 및 제품 평가를 지원 받고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사례>

- 기업명: 디앤씨바이오테크놀로지(2021년 설립) ○ 병원명: 아주대학교병원
- 기업수요: 새로운 검사 방식의 소변검사기 개발과 관련하여 제품의 안정성 및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해 진단의학 분야 임상의 자문 희망
- 지원내용: 진단검사의학과 임상 교수를 전담멘토로 지정하여 기존 소변검사 방식 단점 해결 위한 주요 성능지표 개발과 해당 기기의 제품 설계 개선, 병원-기업 간 지속적인 공동연구 기반 마련 위한 MOU 체결
- 주요성과: 특허 출원 및 등록 25건, 제품개발(의료기관용 요화학분석기) 1건, NET 보건신기술인증 획득 1건

올해 신규 공모에서는 병원과 산업계 간 기술사업화 협력 기반을 확대 조성하고, 병원-기업 간 협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병원이 보유한 인프라 및 사업 추진 역량,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였다.

* (유형① 협업기반 조성형)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공간 구축 및 임상 전문인력 활용 자문 제공

** (유형② 협업성과 창출형)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병원-기업 공동연구 기획 등 심화 협력 프로그램 운영

특히, 이미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던 '협업 성과 창출형' 외에도, 기업과의 점점 마련이 필요했던 새로운 주관 기관(병원)을 '협업 기반 조성형'으로 선정함으로써 더욱 많은 기업이 병원과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선정된 6개 병원은 앞으로 2년간 병원당 4.5억원~6.5억원을 지원 받아 병원 내에 개방형 실험실(실험 또는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창업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있어 병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라면서, “병원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의 수요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임상 의사와 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여 상호 개방형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 붙임 > 개방형 실험실 운영사업 개요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과장	김한숙	(044-202-2901)
			담당자	손민지	(044-202-290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육성단	단장	이철형	(043-713-8803)
			팀장	홍유성	(043-713-8810)

□ **추진배경**

- 창업기업 기술·제품 사업화는 최종 수요처인 병원(임상의사)과의 협력이 중요하나, 이를 연계할 채널 등이 부족

□ **사업목적**

- 병원이 보유한 우수 자원(인력, 시설 등)을 활용한 창업기업 기술(제품) 고도화 및 병원-기업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 **주요내용**

- (전용공간 및 전담조직 운영) 병원 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공간·공동 연구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 (임상 전문가 및 창업기업 발굴)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병원 내 전문가 풀 구성 및 바이오헬스 분야 창업기업 발굴·모집 추진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임상 전문가 컨설팅 제공, 연구회 운영 및 임상의-창업기업 간 협력과제 수행 등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주요경과**

- ('19~'21)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1기 사업 시행(5개 병원* 선정)
 - *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아주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 ('21~'23) 감염병 특화형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시행(2개 병원* 선정)
 - * 경상국립대병원, 이대부속목동병원
- ('22~'24) 1기(일반형) 사업 종료에 따른 2기 사업 시행(5개 병원* 선정)
 - *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아주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 ('25~'26) 개방형실험실 운영사업 신규 시행(6개 병원* 선정)
 - * 유형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인하대병원/유형②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

□ 선정기관별 특징

기관명	특징
<p>양산부산대학교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년 완공 예정인 '제2의생명창의연구동'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예정 - 원내 기술사업화 전담부서인 '기술사업지원부' 운영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관리, 창업지원 등 사업화 관련 활동 수행
<p>인하대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의료, 로봇 시뮬레이션, 첨단재생의료 등 특화 연구 인프라 활용 가능 - 임상의-의과대-공과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 통한 연구회 운영 예정
<p>고려대학교 구로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밸리 융복합 의료클러스터 및 수도권 바이오 클러스터(홍릉, 마곡, 판교, 송도 등)와 협업 체계 구축 - 창업기업 제품 홍보·체험 공간 구축 및 기술 성숙도별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p>동국대학교 일산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과 의료진 및 실무부서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 대상 임상 전문가 자문 지원 - 창업기업 대상 시제품 테스트베드 제공 위한 협력부서 실무 지원실 신규 구축
<p>아주대학교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주 개방형실험실(A² Hub-LAB)의 전주기 서비스 통한 중소·벤처기업 실증 및 고도화 지원 - 베트남 의료기관과의 연계 통한 국외 실증지원 테스트베드 제공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의 연계 통한 개발 제품 해외 판매 지원 등 가능
<p>이화의대 부속 목동병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형 질환유효성평가센터 등 병원 내 인프라 지원 통한 창업기업 성장 지원 -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병원 중심 지원 시스템 구축 통한 창업기업 성장 전주기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 이대목동병원·이화의대·이대서울병원·마곡산업단지 등 "EWHA 메디 헬스케어 클러스터" 활용한 산학연병 네트워크 연계 지원